

News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DSR에 장래소득 반영 확대

매일경제

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 적용되던 LTV규제가 80%까지로 완화... 대출 규제 정상화하겠다는 의미
작년 7월 도입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 대상 주담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적용,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 적용

취약 채무자 늘어날라...지원 나선 인은·핀테크 업계

서울경제

카카오뱅크, 캠코와 주담대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 체결...카뱅 주담대에서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인계하고 채무자에게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식
건전성 제고 전략도 배경인 것으로 풀이...은행은 건전성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 핀테크 업계는 대환 수요 속 시장 선점 및 고객 확보

자본확충 나서는 4대 금융지주...위기 대응력 높인다

아시아투데이

4대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하며 위기 대응력 높여... 기준금리 상승에 대응한 조달비용 완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대비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중요
KB금융 1조 5,000억원, 신한 1조 5,293억원, 하나 8,400억원, 우리 7,000억원에 달할 예정...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방점... 신사업과 M&A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존재

JB금융지주, 벤처회사 메가인베스트먼트 인수

EBN

JB금융지주, 벤처투자 회사인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지분 100% 대상이고 다음달 중 메가인베스트먼트 자회사로 편입 예정
비은행 이익 기반 확대를 통한 그룹 수익원 다각화도 진전되었다는 설명... 그룹 내 투자금융 사업라인과 시너지 효과 창출할 것 언급

생보사 저축성보험 이율 경쟁 재점화...연 3% 확정이율 상품 선보여

이투데이

동양생명,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연 2.7%에서 3%로 확정이율 올려 판매 시작... 일시납 5년 만기로 운영... 다음달에는 대형사들도 저축성 3%대로 올릴 예정
금리인상 움직임 본격화에 보험사의 공시이율과 정기예금이율 금리 차 확대되자 일부 보험사들이 저축보험 판매 독려하는 경우 나타나... 공시이율 잇단 상향 조정

손보사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첫 역전

디지털타임스

올해 1분기 생보와 손보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25조 985억원, 25조 7,717억원으로 나타나...격차 지속적으로 줄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손보가 생보 넘어서...
생보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조 8,696억원 감소... 손보 수입보험료는 1조 2,477억원 증가... 저축·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 초회보험료도 줄어든 양상

미래에셋, IFC 인수 이행보증금 2000억 납부

조선비즈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난 26일 브룩필드자산운용에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환불 불가능한 조건으로 납부... 증권 1,500억원, 캐피탈 350억원 출자
전략적투자자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지분 출자에 참여하기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실제 수익률은 4%대 중반, 배당률은 5% 중반... 납입은 오는 9월 중 마무리

'위험에 강한' 메리츠·KB증권, ISA 시장 두각

굿모닝경제

메리츠증권, 올해 1분기 일임형 ISA 누적 수익률 36.67%로 1위, KB증권 36.22%로 2위 차지... 업계 전체 수익률 26.56%보다 10%p 가량 높아...
메리츠증권, 초고위험 상품의 누적 평균 수익률은 70.36%... KB는 고위험 52.24%, 중위험 33.41% 기록... 경쟁사 대비 부진한 저위험 수익률을 고위험으로 상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